

지역 소식통

고창군,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추진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솔루션은 '거품발생기'를 활용해 미생물제를 퇴비장에 넣는다. 이어 '안개분무시스템'도 도입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에 따라 미세입자를 분사하게 된다. 노후화된 축사 운영에 따른 양돈농가의 악취 민원 해결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군산대학교 환경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로 솔루션 추진단을 꾸렸다.

군은 올해 기존 운영하던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회를 '상생협의회'로 확대한다. 민원이 잦은 농가와 농장별 악취저감 시설현황 등 기준을 마련해 대상농장(10개소)을 선정하고 매월 현장방문으로 사업성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새마을회, 설맞이 코로나 집중 방역 봉사

정읍시 새마을회(회장 김학구)는 20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위생관리를 위한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역 활동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에서 신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새마을지도자와 회원 20여 명이 샘고을시장 일원에서 공중화장실 등 공동시설과 점포 사이사이 통로와 바다, 문, 벽 등을 꼼꼼히 소독했다.

또한 정읍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방역복과 살포기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방역 활동에 힘을 보탰다.

김학구 회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마을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방역 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선정

정읍 샘고을시장,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부스 행사' 2년 연속



정읍 샘고을시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부스 행사'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선정됐다.

'전통시장 부스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을 줌으로써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샘고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판매하는 41개 점포에서 물품구매 시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다.

666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점포에는 참여 대상임을 알 수 있게 관련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상품권 환급은 당일 물품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지참해 샘고을시장 내 고객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일 사용 소액 영수증을 합산할 수 있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내 주요 구간에 행사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민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시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과 일정거리 두고 줄서기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한 샘고을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

고창군, 자체 추가지원... 최대 보험료 91%까지 지원

고창군이 올해 군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다.

올해부터 온실과 소상공인(상가·공장)에 대해 79% 상향된 정부지원율과 고창군의 자체 추가지원을 통해 총 보험료의 최고 91%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창군 신림면 이모씨는 개인부담 9300원의 풍수해 보험가입 후 주택침수 피해로 1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기

준 고창군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7402명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고창군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와 단체보험 가입방식으로 가입하게 된다. 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개 민영보험사(DB손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해상, KB손해, NH농협손해) 및 고창군 재난안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군청 김정수 재난안전과장은 "겨울철 대설과 강풍은 물론 태풍·홍수·호우 등 사시사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대책을 통해 군민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공무원 임금협약 체결... 근로의욕 높여

고창군과 전국공무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이하 공무직노조)가 2021년·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오후 2층 회의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최선례 고창군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금협약식은 경과보고,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고창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해 9월 14일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실무교섭을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군에서 장기근무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자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했다.

또 재활용품 분류, 음식물쓰레기 등 격무시설근무자에 대한 정려수당을 인상하고 환경미화원에게까지 확대·지급해 격무업무·격무시설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더욱 개선했다.

고창군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윈윈한 합의점을 찾아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고창군과 노조가 협력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 속에서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례 지부장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임금협상으로 공무원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더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꾸려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국회 발품행정

2022년 국가예산 반영 감사 · 2023년 국가예산 협조 요청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9~20일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주요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2022년 부안군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협조에 감사인사를 하고 2023년 국가예산 반영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품행정을 펼쳤다.

이번 방문에서 권익현 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김한정·서병수·박진·정운천 국회의원 등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협조해준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조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공없는 협조를 당부했다.

격조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정부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고 이후 국민들의 해양레저 및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 대응을 위해 전북지역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9~20일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주요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2022년 부안군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협조에 감사인사를 하고 2023년 국가예산 반영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품행정을 펼쳤다.

전무한 해양문화시설 유지를 위해 부안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은 매년 예산 편성에 맞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력을 기울여왔다"며 "올해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정치권 연계를 공고히 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업인 실용 교육 비대면 본격 시작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주관 2022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 2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다.

올해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기존에 진행하던 읍·면·동 집합교육 대신 동영상 제작해 각 마을 이·통장과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등 2,000여 명에게 배포한다. 또 정읍시 유튜브 채널 정읍 sec와

카카오톡 채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재해 누구나 교육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벼와 고추 재배 등 영농기술을 비롯해 주요 병해충 방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탄소중립 실천운동 등을 주제로 한다.

또한, 각 읍·면·동사무소와 농업인상담소에서 실용교육 교재를 배부해 보완 교육을 도울 예정이다.

이완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